

독일 하이테크 박람회

('91. 2. 27~3. 9)

현장취재



독일의 첨단산업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독일 하이테크박람회 (Technogerma Seoul '91)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되었다.

기계, 산업설비, 전기 및 전자, 화학, 정밀공학, 자동차, 서비스산업 등으로 구성된 이번 전람회는 그 규모가 방대하였다. 독일의 유명 대기업, 중소기업 합하여 300여개사가 참여했으며, 전시면적은 6,000여평이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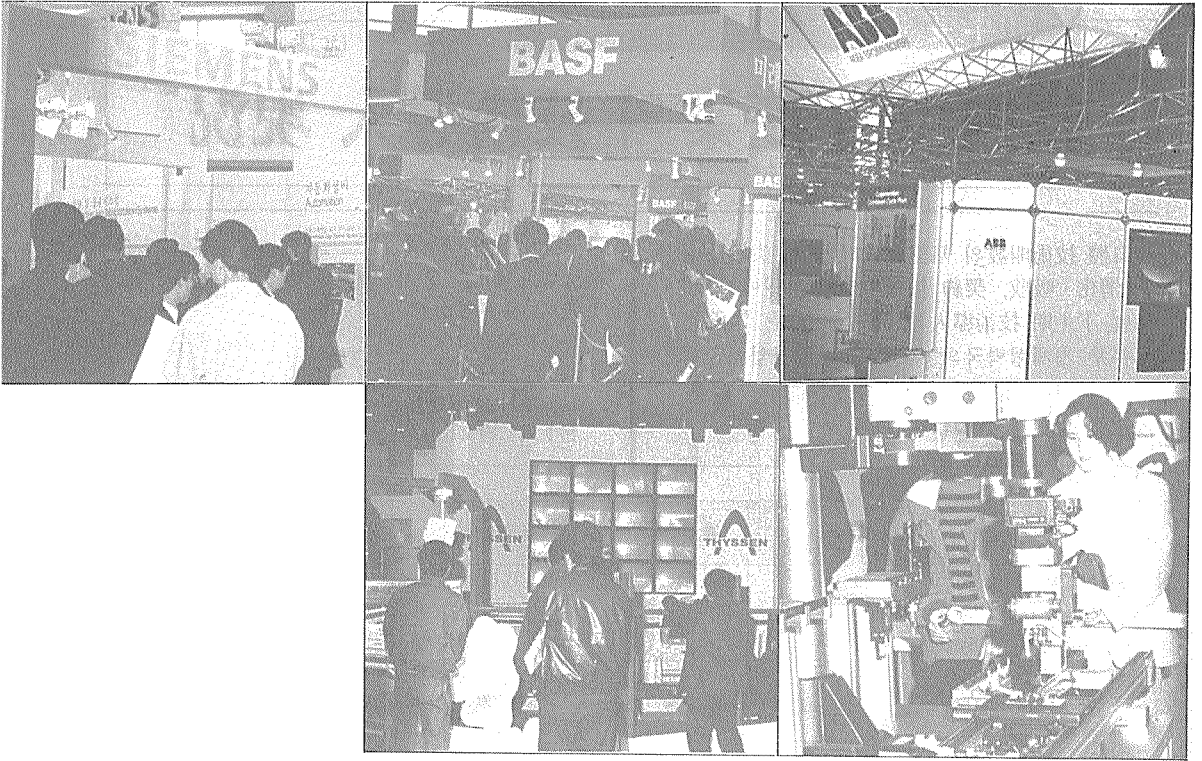
통독후 최초의 해외전시회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의의를 지니는 이번 전람회는 지난 '54년 멕시코 개최를 처음으로 75년 중국 북경, '79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84년 일본 동경, '88년에는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전람회에는 상품전시회와 더불어 3개의 특별주제 전시회와 100여회의 각종 심포지움, 세미나 및 초청공연 등의 부대행사 역시 활발히 개최되었다.

특별주제별 전시회는 독일의 환경정책 및 기술, 기업내 직업훈련, 독일의 디자인 기술 등으로 독일의 환경정책 및 기술에서는 베를린주 환경청에서 환경관련 전시물을 소개하였고, 기업내 직업훈련에서는 독일문화원이 금속 및 전자·화학산업 분야에서 사례를 선정하여 독일 기업의 직업교육의 예를 보여주었고, 디자인 특별전시회에서는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이 되어 자동차, 가구, 주방용품, 카메라, 시계 등에 사용된 디자인 기술을 설명하였다.

과학기술세미나는 독일상공회의소연합회 주최로 중소기업 관련 심포지움, 독일산업연합회 주최 한·독협력증진 심포지움 및 이번 박람회 참가업체의 첨단기술 심포지움 등 3개분야로 나뉘어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 전시품 중 기계공업과 플랜트건설부문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지



만 이에 못지 않게 전기 및 전자부품 제품의 비중도 높았다.

보쉬社は 전화통신기술, 자동차용 라디오, 의 료용전자장비를 바이드물리社は 전자 연결시스 템 및 회로보드코넥터를, 지멘스社は 반도체와 오디오 및 비디오시스템을 출품하였다.

이와같은 독일의 전기전자제품은 180 여개국 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현재 제어 및 자동화기술, 의학전자 및 전동공구와 같은 주요분야에서 새 계적인 수출국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독일의 정밀엔지니어링 및 광학산업부 문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분야에 대한 급속한 성장으로 이부문에 대하여 전자부 품을 도입한 데 있는 것으로 의료기기 및 계측 기기 등의 개발제품이 대대적으로 출품되기도 하였다.

한국과 독일의 무역관계는 1884년 최초의 교 역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일정부는 한해에 2,000여개의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를 개최 또는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에 서 개최되는 한국전자전람회 및 반도체인쇄회 로기판 생산장비 국제전 등 각종 국내 전시회 에도 참여하여 왔다.

독일은 이번 박람회와 관련, 정부가 적극 주 관하는 행사인 만큼 단순히 상품판매를 위한 판 축전 아니라 경제협력을 위한 동반자를 찾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 한다.

이번 독일하이테크박람회는 통일 독일의 산 업역량을 확인하고 독일에 대한 이해 및 상호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 또한 선진 독일의 하이테 크 제품에 대한 일방적인 부러움보다는 이를 우 리의 발전 계기로 삼아 우리 전자산업도 머지않 은 장래에 선진공업국으로의 진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전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